

자료집

故 산민(山民) 한승헌 변호사 추도식



| 일시 | 2022. 4. 24.(일) 오후 5시

| 장소 | 서울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예식실(2층)

산민(山民)한승헌 변호사 민주사회장장례위원회

하늘이 못 주신
사람 하나를
하늘 눈 감기고 탐낸 죄
사랑은 이 천벌

- 김남조(1927~) ‘사랑초서’ 중에서

“연작시 ‘사랑초서’는 당초 ‘심상’ 등 문학지에 연재될 적부터 나를 사로잡았다. 그중에서도 위에 옮겨 놓은 한 연(聯)은 감동과 깨달음을 넘어선 충격이었다. ‘천벌 같은 사랑’을 앓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이에게 이 시가 잠언으로 배어들었으면 좋겠다.”

- 한승헌 변호사의 ‘나를 혼든 시 한 줄’ 中

내가 변호했던 한 정치인이 감옥에서 나온 뒤 말했다

“한 변호사가 변호한 사람치고 징역 안 간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

처음엔 들고만 있다가 나중에는 나도 응수(?)를 했다.

“징역 가면서도 나에게 고맙다고 인사 안 한 사람 있으면 손들어보시오.”

- 한승헌 변호사의 유머기행 속 산민객담

산민(山民) 정신

“나는 '산민'의 뜻을 '산골 사람 같은 민초들과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이해했다. 사회적 약자, 소외받는 계층, 불우한 사람들을 멀리하지 말라는 당부였다고 생각된다. 결코 풍류나 덕담 차원의 아호가 아니었다. 나는 이처럼 선생께서 일깨워주신 '산민정신'을 소중히 마음에 새기며 살아왔다.”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던 사람

“밤낮으로 감옥에서 묶여있고, 가서 고문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조금 고달프다고 해서 다 손 떼고 나올 수가 없어요. 진실을 외면하고 돌아서서 '나 좀 편하자' 양심이나 신념의 문제를 떠나서 사람이면 그게 안돼요.”

사서 고생하는 변호사

“세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인권변호사라고 칭하지 맙시다. 나를 의롭다 믿고 남을 하대하지 맙시다. 사서 고생하는 변호사가 됩시다. 사서 고생하는 이 시대의 선구자가 됩시다.”

해학가 한승헌

“인간으로서의 따뜻한 마음, 각박한 인간관계를 밝고 넉넉하게 해주는 친화력, 생활 속에 배어드는 삶의 운치, 낙천적 즐거움, 답답함과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는 정신적 여유 등을 갖추기 위하여 나는 '대화 속의 해학'을 권고한다. 다시 말하거니와 유머 또는 해학은 경직성과 난해함을 완화하고 친밀감을 높이며, 화목한 분위기와 이해력을 증진시켜준다.“

차례

● 식 순	1
● 약 력	3
● 주요 변론사건	8
● 추모시	
김준태 시인	14
김용택 시인	17
최자용 신부	20
● 추모사	
함세웅 신부(상임장례위원장)	27
김선수 대법관	30
김영주 목사(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 상임이사)	34
명진 스님(사단법인 평화의 길 이사장)	36
● 노제 추모사	
김승수 전주시장	39
황민주 전북시민사회단체 대표	43
● 산민(山民)을 기억하다	
쿠시자키 히로시 일본평론사 대표	44
임헌영 문학평론가	47
조영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50
● 추모 성명	53
● 추모 신문광고	58
● 산민(山民) 한승헌 변호사 민주사회장 장례위원회 명단	59
● 산민(山民)을 추억하다	65

故 한승헌 변호사 추도식 식순

| 사 회 |

- 정연순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민 중 의 례 |

| 추 모 영 상 I | 민족문제연구소 제작

| 약 력 보 고 |

- 조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추 모 사 I |

- 함세웅 신부(상임장례위원장)
- 김선수 대법관
- 김준태 시인

| 조 가 |

- 장사의 소리꾼

| 추 모 사 II |

- 김영주 목사(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 상임이사)
- 명진 스님(사단법인 평화의 길 이사장)

| 추 모 영 상 II | 장례위원회 제작

| 유 족 인 사 |

- 한규무 차남

| 호 상 인 사 |

- 박용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회원
- 박종렬 목사
- 장영달 민청학련동지회 상임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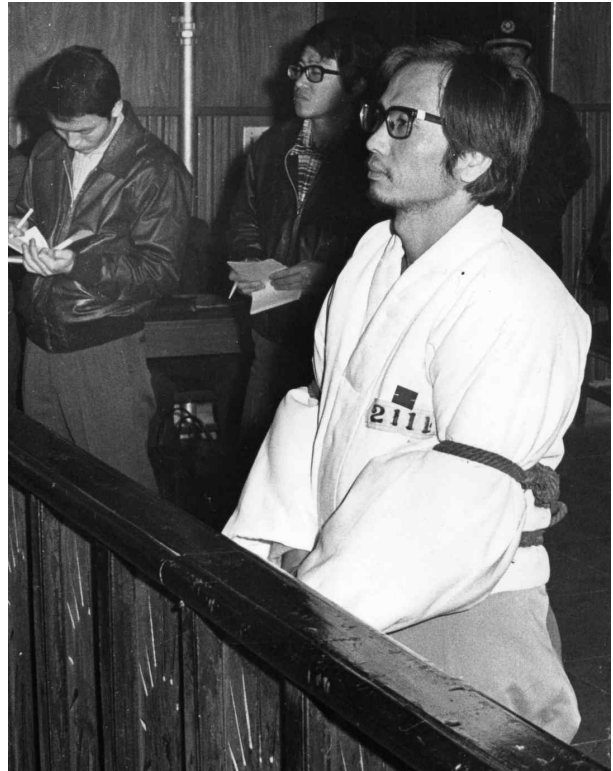
| 현 화 |

故 한승헌 변호사 약력

약력

- 1934. 9. 29. 전라북도 진안 출생
- 1953. 전주고등학교 졸업(수석)
- 1957. 전북대학교 법정대학 정치학과 졸업
- 1957.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 1957.~1960. 군법무관
- 1965. 변호사 개업
- 1965. 분지필화(糞地筆禍) 사건 변호(시국 사건 1호 변호사)
- 1967. 한국기자협회 법률고문
- 1967. 동베를린 간첩단사건 변호
- 1974. 민청학련 사건 변호
- 1975. 인혁당 재건위 사건 변호
- 1972. 국제 앰네스티 한국위원회 창립이사
- 197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
- 1975. 반공법 위반으로 연행, 9개월간 옥살이로 변호사 자격 정지
- 1978. 출판사 ‘삼민사’ 설립
- 1980. 김대중내란음모사건으로 투옥
- 1988. 한겨레신문 창간위원장
- 198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회원
- 1988. 방송위원회 위원
- 1990. 민족문화작가회의 이사
- 1993. 김대중납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의 연대모임 공동위원장

- 1994.~2004.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 1995. 전북대학교 법학 명예박사학위
- 1996.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 1998.~1999. 제17대 감사원장
- 2002.~2004. 제3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 2004. 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변호대리인
- 2005.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
- 2007. 전북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석좌교수
- 2007.4.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석좌교수
- 2017.5. 통합정부추진위원회 자문위원단 단장



법복을 입은 30대의 한승헌 변호사 (좌측)

‘어떤조사 필화사건’ 으로 구속되어 법정에서 서있는 한승헌 변호사(1975년) (우측)

수상

- 1994. 중앙언론문화상
- 1999. 청조근정훈장
- 1999. 인재인성대상
- 2007.4. 제21회 단재상
- 2007. 제2회 임창순 학술상
- 2018. 국민훈장 무궁화장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받는 한승헌 변호사의 수상 모습(2018년)

저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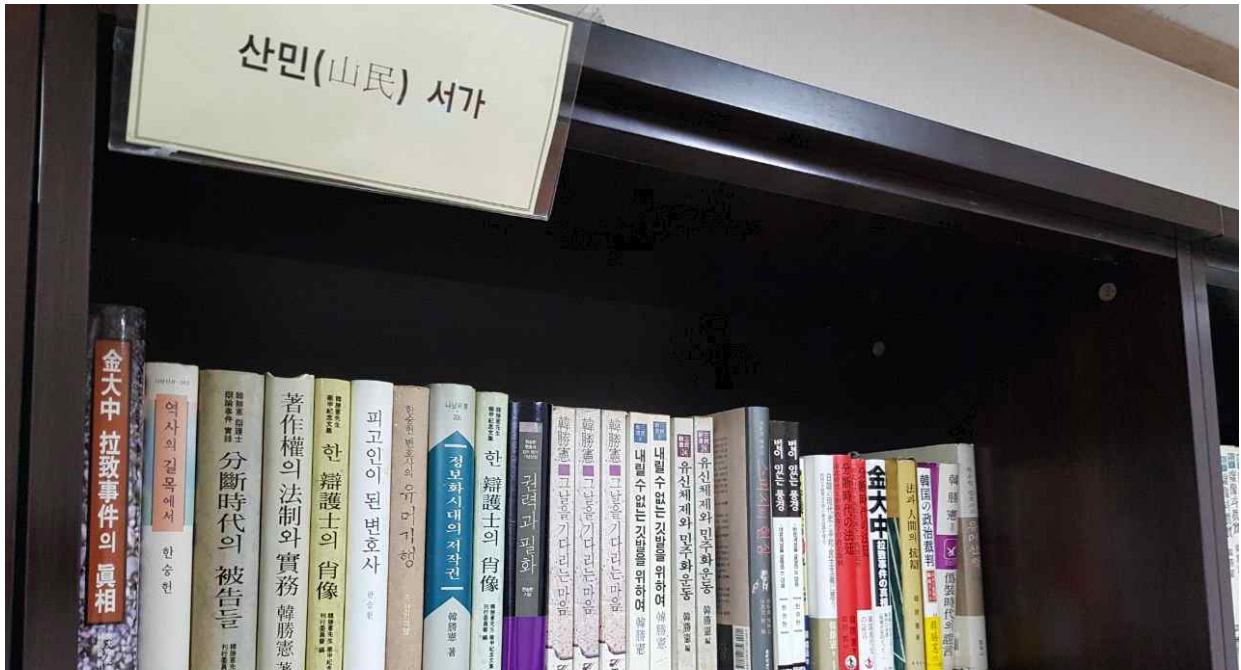
- 1961. 시집- 인간귀향
- 1967. 시집- 노숙
- 1972. 한국의 정치재판
- 1972. 법과인간의 항변
- 1983. 내릴 수 없는 깃발을 위하여

- 1985. 허상과 진실
- 1985. 역사발전과 민주문화의 좌표
- 1986. 법창에 부는 바람
- 1988. 저작권의 법제와 의무
- 1990. 갈망의 노래
- 1994. 분단시대의 피고들 - 한승헌 변호사 변론사 사건 실록
- 1994.. 한 변호사의 초상
- 1996. 정보화시대의 저작권
- 1997. 불행한 조국의 임상노트
- 2000. 법이 있는 풍경
- 2002. 내 마음 속의 그들
- 2003. 역사의 길목에서
- 2005. 산민객담 - 한승헌 변호사의 유머산책
- 2006. 분단시대의 법정 - 한승헌 변호사 변론사건 개요
- 2006. 한승헌 변호사 변론 사건 실록 1~7
- 2007. 글로벌 시대의 한국과 한국인(공저)
- 2007. 한승헌 변호사의 유머 기행 - 속 산민객담
- 2008. 법창으로 본 세계 명작
- 2009. 한 변호사의 고백과 증언
- 2010. 한승헌 변호사 스피치의 현장
- 2012. 유머수첩 - 한승헌 변호사의 산민객담3
- 2013. 피고인이 된 변호사
- 2013. 권력과 필화
- 2014. 한국의 법치주의를 검증한다
- 2016. 재판으로 본 한국현대사
- 2016. 하얀 목소리

2017. 한승헌 수필전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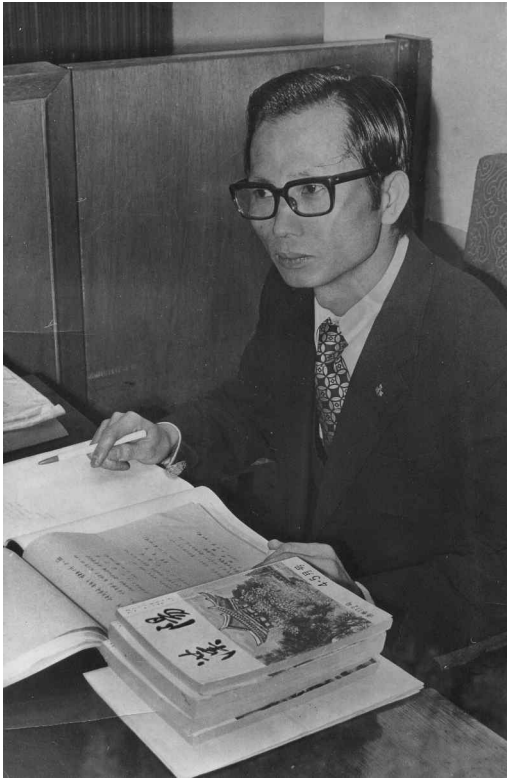
2018. 법치주의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2019. 그분을 생각한다



한승헌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후배들을 위해 기증한 책자로 꾸러진 산민(山民)서가

故 한승헌 변호사 주요 변론사건



한양지 사건의 문인들을 변호하고 있는
한승헌 변호사의 법정 모습(1974년.)

- 1965. 소설 <분지> 반공법 필화 사건
- 1967. 동백림(東伯林)간첩단 사건
- 1968. 통일혁명당사건
- 1971. 제일 한국인 모국 유학생 서승, 서준식 형제 간첩 사건
- 1973. 남산부활절예배사건
- 1974. 민청학련 사건 / 백낙청 교수 파면 처분 취소소송
- 1975. 김지하 사건 / 선교자금사건 / 긴급조치 제9호 위반사건들 / 한국일보 기자노조 사건

- 1975. 인혁당 재건위 사건
- 1976. 명동사건(3.1민주구국선언사건)/ 서울대 의대 간첩단 사건
- 1977. 청계피복 노조 사건
- 1978. 리영희 교수 필화사건 / 양성우 시인 필화사건 / 동아투위 민권일지 사건
- 1979. 남조선민족해방전선사건 /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 / 오원춘 사건
- 1982.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 원풍모방 노동조합 탄압사건/ 여성에 대한 정년차별 시정소송 / 휘어차일드 회사의 노동운동가 해고사건
- 1983. 송씨일가 간첩단 조작사건
- 1984. 제일동포 유학생 간첩조작사건/ 서울대 ‘학원푸락치’ 사건/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영천기름집 살인사건/ 대우자동차 사건

1985. 삼민투 사건/ 서울 미문화원 점거 사건/ 대우어패럴 사건/ 민중교육지 사건

1986.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녹두출판사 사건/ 서울노동운동연합 사건/ 보도지침 사건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옥고를 치르시다가 석방되는 김동길 목사님을 바라보는 한승헌 변호사(1975년)

1987. 제헌의회 사건/ 민중미학연구소 사건

1988. 전민련 사건

1989. 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

1989. 임수경 전대협 대표 방북 사건

1989. 작가 황석영 방북 사건

1989. 강희남 목사 방북 조문 미수사건

1991.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건

1994. 구국전위(救國前衛) 사건 : 조선로동당의 남조선 지하당인 구국전위 관련자 에
대해 형법상 간첩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회합·통신, 금품수수죄
등을 적용, 구속한 사건

1995. 12.12사건(재심)

2004.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사건

1972. 9. 어떤 조사 - 어느 사형인의 죽음 앞에(전문)

566.

"한승헌저 위정시대의증언"
"여성동아 1972. 9월호"

어떤 조사
- 어느 사형인의 죽음앞에 -

신문한 귀퉁이, 눈에 띄이기도 힘든 일단기사에서 당신의 죽음을 알았습니다.
사형이 집행된 것입니다.
주류 줄고량이 크게 줄었다는 기사는 같은 지면에 2단으로, 여자면도사의 해고
기사는 3단으로 실려있었습니다.
당신이 태어난 지구 한 모퉁이 이 좁은 반도 위에서 이미 당신은 육신을 거부
했습니다. 당신이 형장으로 달려간 그날저는듯이 내려쬐인 폭양은 당신이
숨을 거둔 다음에도 그대로 내려쬐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봄비고 "남북공동성명"이야기는 종잡을 수 없이 오락가락
하며 비어홀에선 나제 춤이 기승을 부립니다.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말입니다.
강요된 생명의 박탈이 당신으로해선 온 우주가 무토 돌아간 단절이었던만 살아
있는 우리들은 천년장생을 누리기라도 할듯이 세속에 탐닉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나와 인연이 없고 이해관계가 없는 일은 심지어 "법에의한 살인"까지도
별 관심 없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의 불행에대한 무관심이야말로 당신의
죽음이 일단짜리 기사로 끼어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죽기는 매한가지인데 1단이면 어떨고 5단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괜히 산
사람의 감상이 빛어낸 너두리에 불곡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곡 얼마전
미국의 연방 대심원에선 사형제도의 위헌을 선언하여 생명의 불가침이 크게 재인식
된 터이라 유달리 착잡한 느낌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후진국에 태어난 목숨이라고해서 선진국사람의 그것보다 가벼운것도 아니고 천한
것도아닌데 실상은 엄청나게 다른 대접을 받는구나 실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이미 사형을 폐지한 나라가 40개국에 이르고있습니다. 아예 법률상
으로 폐지한 나라가 있는가하면, 법에는 사형제도가 남아있어도 사실상 사문확한
나라도 있습니다. 혹은 사형을 선고는 하지만 실제로 사형집행을 하지않는 나라
까지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사형제도에 대하여 구구한 설명을 하고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가지 말할 수있다면 만일 당신이 한국 아닌 다른나라에 태어났더라면 최소한
오랏줄에 목을 매이는 그런 죄수는 면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가정이 이제 약서 무슨 소용이있겠습니까마는 부질없는 아쉬움에 "만일"
이나 "혹시"를 잃어 "...했더라면"을 들먹이는것이 숙명에 쫓기는 인간의 안타
까움이기도 합니다.

842497

말하기 좋게 "조국"을 들먹이지만 바로 그 잘못 태어난 조국 때문에 어저구니없이 죽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더러는 사회질서의 명분으로 또 더러는 국가방어의 이름으로 요컨대 전체위주론 내건 어떤 목적 밑에 개체의 존엄이 부너져가는 경향이 한탄스럽습니다.

나는 당신에 대한 사형선고가 타당한 판결이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당신에 대한 장황한 공소사실이 엄격한 증명을 통하여 밝혀진 것인지 그것도 확실히 모릅니다. 당신이 저질렀다는 행위가 과연 처단법조에 해당되는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오직 법관만이 자기 심증으로 특백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심성한 사법판단에 희의를 품는다는 것은 자칫하면 경솔한 억측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도 무작정 판결을 예찬하고 승복할 수만도 없는 — 그런 갈등을 드물지 않게 겪어야 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높은 지존의 자리에 있다 해도 전능일 수 없다는 것. 심판하는 단상의 성직자도 하나의 불완전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그러기에 그들의 판단, 그들의 견함으로도 뒤편을 수 없는 한계가 엄연히 있다는 것 — 이런 사리 짚어야 조금도 의문의 여지가 없는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리를 직면하는 곳에 인간의 비극이 사색되고 죄악이 머리를 듭니다. 권력이 전능을 탐하고 심판이 완전을 착각하기 때문에 절대의 생명이 상대적 판단 앞에 아침이슬이 되곤 합니다.

우리 나라 헌법에는 용지 권력도 법의 한계를 지켜야 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법권을 련 법금 또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만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규범으로서의 타당성을 잃지 않아야 하고 법금의 양심이 제대로의 바탕을 갖추고 있음을 전제로 해서만 재판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두가지 전제가운데 하나만이라도 고장이 생긴다면 범죄를 다룬다는 재판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범죄를 범할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고 혹은 주위의 정세에 눈치를 보면서, 아니면 추상같은 엄단만이 능사라는 생각에서 엄청난 오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법에 사형을 규정한 조항이 너무도 많다는 입법의 과오, 생명형 아닌 다른 형벌을 선택할 권한을 용기있게 행사하지 못하는 사법의 과오 — 이런 것이 어저면 당신을 이 세상으로부터 앗아갔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하나의 구체적 개인이면서 동시에 권력과 법의 이름 밑에 희생한 비극적 인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만일 법정단상의 그네들이 인간 존재의 엄숙한 의미와 심판하는 자로서의 상대성을 조금판 더 깨달았더라면 오늘 나는 이런 글을 쓰지 않아도 좋았을 것입니다.

지하에 누워있는 당신에게 이 장황한 이야기가 무슨 소용 무슨 위로도 되지 못함을 잘 압니다. 그러나 아직은 살아서 숨쉬는 "남은 자" 또한 잠재적인 범인이요 언젠가는 죽어갈 운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생각지도 못한 일로 해서 당신의 그 처참한 길을 뒤따를 사람이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아파하는 것은 곧 앞날의 "미확정사형수"를 위한 인간의 절규를 높이는 결의이기도 합니다.

사라져야 할 죄후의야만에 희생된 당신에게 뼈아픈 애도와 위로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죽절된 당신의 소망이 명부의 하늘 밑에서나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제도보다 양심이 더 문제다

한 승 현

천국과 지옥 사이에 무슨 일로 분쟁이 격화되어 마침내 소송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런데 재판은 천국 쪽의 패소로 끝났다. 뜻밖의 결과에는 뜻밖의 원인이 있었다. 천국에는 변호사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임종을 앞둔 신부님이 누구의 문병도 거절하시더니 한 법조인의 간청만은 받아들였다. 대단한 예외였다. “저에게만 이렇게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하고 그 법조인이 감격한 어조로 사의를 표하자 신부님은 이렇게 응답하셨다. “고마워할 것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당신 같은 법조인들이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이지...”

이런 이야기를 읽고서(듣고서)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마음은 평탄하지가 못하다.

이 나라의 법조인들이 국민의 비판과 규탄의 표적으로 떠오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대개는 산발적이거나 일과성의 목소리에 그쳤다. 특히 유신 이후 수많은 시국사건 재판을 강행하면서, 검사는 말할 것도 없고 판사들조차도 국민과 헌법의 기대를 저버리고 추종과 보신(保身)에 ‘열성’을 발휘한 탓으로 재조법조가 원색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추모시-김준태 시인

**산민 한승헌 변호사님! 한반도분단 77년의 세월
님은 ‘분단시대의 법정’ 에서 불이(不二), 두 쪽으로
깨뜨릴 수 없는 ‘정의Justice의 금강석’ 이었습니다!!**

진달래꽃이 지면 오동나무에 오동꽃이 피는 4월
산민 한승헌 변호사님은 저 먼 길을 가고계십니다
지상의 법전을 내려놓으시고 하늘의 법전을 들고
여기 반쪽이 된 나라에서 하느님 나라로 가십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88년 인생과 삶을 내려놓으시고

예, 우리들이 사랑하고 사랑한 이 땅을 떠나십니다
“사람이 하늘이다! 백성이 하늘이다!” 외치고 외친
“새야 새야 파랑새야” 갑오년 동학농민혁명의 고향
어머님의 물레소리 들으며 자란 전라북도 진안고을
푸른 산이 솟으면 푸른 강이 생겨 흐르는 고향에서

바람과 나무의 책을 읽고 물의 책을 읽던 심성으로
법학과 정치학보다 사람을 먼저 섬긴 한승헌 변호사
몸무게는 55kg이었으며 녹두콩 녹두알 그 단단함으로
피어린 역사의 부름과 가시밭길 비켜서지 않았습시다
기나긴 어둠의 세월 불의에 고개 숙이지 않았습시다

아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었던
아흐,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의 독재시절 법정에서

아흐, 서슬도 시퍼런 총칼이 들어와 있는 군사법정에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아니다 그대의 생각이 틀렸다!” 고
분단법정에서 말한 사람은 산민 한승헌 변호사였습니다

소설가를 빨갱이로 몰고 해외동포예술가를 간첩으로 몰고
젊은 학생들에게 재갈 물리고 ‘푸른흔들’ 을 선고 한번으로
사형에 처하고 대통령후보를 내란음모죄로 뒤집어씌우고
통일운동 하는 신부와 목사와 스님들을 철창 속에 가두고
노동자농민이 생존권을 주장하면 국가반란죄로 묶어버리던

일당독재시절에 군부독재시절에 산민 한승헌 변호사님은
두 손에 쇠고랑을 찬 시인들을 위하여 교사들을 위하여
대학에서 쫓겨난 교수들을 위해 변호와 변론을 목숨처럼
온몸으로 실천했습니다 역사와 운명을 같이해왔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항상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숨쉬는 사람몸이 정의이기에 숨쉬는 사람몸이 평화이기에
숨쉬는 사람몸이 자유와 평등과 박애이며 민주주의이기에
숨쉬는 사람몸이 헌법이기에 숨쉬는 사람몸이 법률이기에
하늘과 바다와 땅이 담겨서 출렁이는 사람몸이 법전이기에
사람몸이 만물의 중심이요 진선미의 바탕이요 척도이기에

님은 분단 77년의 세월, ‘분단시대의 법정’ 에서 오 불이(不二),
두 쪽으로 깨뜨릴 수 없는 ‘정의의 빛나는 금강석’ 이었습니다!
이 땅 한반도 모든 불행과 불법과 무지함은 ‘분단’ 에서 왔다고
그리하여님은 자유와 평화와 사람의 법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정의와 평화를 지키고 만드는 강한, 아름다운 변호사였습니다

아 하늘에 가실 때까지 70년을 넘어선 분단시대의 법정에서
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지켜낸 ‘살림의 법’ 로고스Logos!
사랑과 자비와 동서남북 ‘하나’ 가 되는 불이(不二)의 몸속에서
태어날 통일헌법을 꿈꾸면서 님이여 우리 강산 고운 님이여!
편히 가소서 지상의 법전을 내려놓으시고 하늘의 법전을 들고

정든 산 정든 마을 고향을 찾아가듯이 꽃상여를 타고 가소서
진달래꽃이 지면 오동나무에 오동꽃이 피는 이 눈부신 4월에
하느님께서 주신 88년 인생과 삶을 비단옷처럼 내려놓으시고
님이여 산민 한승헌 변호사님! 첫사랑처럼 잊지 못할 님이여!
서울 한강을 건너 호남천리를 달려 광주에서 하늘 오르소서!!

한승헌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편히 쉬소서 영원, 평화하소서!

2022년 4월 24일

손 모아 합장삼掌!!

김준태(남녘땅 노래시인)

추모시-김용택 시인

당신이 주고 가신 詩가 우리 역사의 답이 되었습니다

— 한승헌 변호사님 영전에 앞드려 삼가 올립니다

마음을 잡으려고

강가에 와 섰으나

당신에게 드릴 적당한 말을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산에는 오동 꽃이 피고 뒷산에는 감잎이 핍니다.

강에는 바람이 먼저 와 있고 구름을 따라 나비가 날아갑니다.

새로 돌아나는 풀잎들 사이에 숨어있는 당신에게 드릴 말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강가로 모여듭니다.

당신은 먼 길 떠난 아들딸을 불러오는 아버지였고

넘어진 청년들을 일으켜 흠 묻은 손을 털어주는 선생님이셨고

구부러진 세상을 펴주는 변호인이었습니다.

당신의 모자랄 것 없는

한 생애가 모두 우리였습니다.

역사였고, 혁명이었으며, 실패였고, 좌절이었고 희망이었으며 용기였고, 완수였습니다.

흠바람 이는 3월이었고 4월의 바람이었으며, 5월의 아침이었고

6월의 거리였으며. 촛불을 든 해가 질 무렵이었고,

시를 쓰는 나무들의 노을이었으며, 그리고 사랑이었으며, 당신이기도 한

저 일련의 봄 햇살들을 아직도 우린 어찌 하지 못합니다.

감당은 쉬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말은

당신의 죽음 앞에 더듬더듬 몇 마디입니다.

당신의 머리 위로

언제나처럼 달이 떠 있고, 구름이 지나가고, 비가 지날 것입니다.

당신은 어딘가로 걸어가겠지요.

당신을 따라가며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뛰어가 옷소매를 부여잡고 사랑했었다고 크게 소리치고 싶습니다.

착하고 선하고 그리고 고난 앞에 너그러웠던 아름다운 당신,

나는 당신에게 늘 공손하고 싶었습니다.

존경이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그 말이 품고 있는 세상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우리들의 최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받아 주세요.

역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의를, 자유를, 평등을 우리들의 못 다한 사랑을 모아 드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나 강을 건너 오라도 부르지 않습니다.

물소리는 아무나 길을 터주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당신을 부르겠습니다.

당신을 부르면 당신과 함께 강을 건너 올 고운 얼굴들을 우리는

한 사람 한사람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어라 말 할 수 없는 우리들의 말들이, 눈물 바람 같은 우리의 말을

알고 있지요.

그 것은, 구름 아래와 같이

말이 없지만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꽃피고 새 울고 오래 된 우리들의 하늘에는 흰 구름이 떠갑니다.

당신의 나라, 우리들이 사랑하는 나라,

마을 사람들이 당신을 부르며 강을 건너옵니다.

우리도 당신을 부르며 강을 건너갑니다.

흘러오고 흘러가는 역사의 강에서, 그 강물의 한 복판에서

당신이 이 땅에 남기신 시, ‘하얀 목소리 ‘를

당신의 말로, 우리들의 말로, 거룩한 역사의 정답으로 삼겠습니다.

거센 바람이야 어제 오늘인가.

아직은 목마름이 있고

아직은 바람이 있어

시달려도, 시달려도 찢기지 않은

꽃 잎 꽃잎

꽃잎은 저도 즐기는 남아

즐기 꺾이어도 뿌리는 살아서

상처 난 가슴으로 뺨어 내려서

잊었던 정답이 된다.

- 한승헌 [백서] 부분

2022년 4월 24일

김용택 시인

추모시-최자웅 신부

고 산민 한승헌 변호사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선생님은
꽃피는 사월
야릇한 꽃 피어나는
'검새들의 계절'에
가시는군요.
바야흐로
배신의 주역이 설치는
배반의 세월이 아니었다면
산민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은
후예 장애소년공 호민관 출신이
제2의 전태일로
활짝 부활한 새시대를 꿈꾼
민중 소망의 세상
민주주의 승리가 이루어졌더라면
참 민중의 의로운 변호사님을 보내드리는
우리의 장례는 축제이며
사실상 장엄한 국장이었을 것입니다.

.

.

그러나
그렇지 못한 오늘,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하여
전라도 진안고원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민중의 아들로 태어나
어두운 시대와 세월을
암야의 등불과 탁류 속의
청류 한 줄기처럼 의로운
온 삶을 바치시며 분투하시고
투옥과 긴 세월 변호사직도
박탈당하시며
고난의 삶을 살며 헌신하신
이 나라의 최고의 민주투사와
참 호민관, 참 법조의 어른과
참 크리스찬 권사님을
지상에서 하늘로 보내드리며 하직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심히 슬프고
많이 무겁습니다.

.

.

오직
광기와 야만이
득세하고 지배하던
모진 시대에

선생님은
외로운 청년작가
남정현의 파숫꾼으로부터
동백림사건, 통혁당사건, 김대중 사건
민청학련, 인혁당들과
임수경, 황석영 방북 등등
이 땅의 그 숭한 의로운
억울하고 슬픈 죽음과
고난의 현장 마다 마다에
무간지옥 염라대왕 앞에서
의인들의 수호신과
사천왕으로
그 선하신 눈빛과
가냘프신 몸매로, 그러나
안 계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살아있는 언론을 위해서도
힘을 쏟으셨습니다.
. .
그러나
그렇게도
어렵게 이룩한
조국 한국의 민주화와 선진화가
뿌리에서부터 흔들릴지도 모르는
오늘의 현실 앞에서

선생님께서도

편치 않으신 가슴으로 눈을

차마

쉽게 못 감으셨을 것입니다.

.

.

그러나

저희들은 결코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님과 선배세대의 님들이

흘리셨던 그 눈물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며

치열하고

선하게 싸우신 그 삶과 역사가

바로 오늘의 전사(前史)이며

제대로 살아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

.

존경하는 한변호사님!

우리가

진정한 민주화와 통일민족을

이룰 때까지는 부디 눈감지

마십시오.

광주 망월동과 하늘에서

눈 부릅뜨시며
오직 눈 먼 권력과 특권과 탐욕에
빠져 또다시 국정을 농단하며
난자질할 자들과 낮은 세력들에게는
추상같으신 분노와 햄머를,
선생님의 제자와
후배들로
이 선한
싸움을 감당할 우리에게
크신 용기와
너그러우며 위트 있고
단수 높으신 유머도 선물하여
주십시오
. .
검은 깃발 휘날리는
불의와 악과 위선의 시대에는
“우리들
모두 사서 고생하십시오!!”
이것이 선생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10대 20대 젊은
세대와 자식들이
아니 우리 모두가
예전에 비할 수 없는

물질적으로는 풍요한
선진국 문턱에 살아도
이것을,
선생님의 추상같으신
이 정신과 삶을
이어받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

.

의에 치열하시면서도
온전하신
덕인이셨던 산민 선생님!
비록 몸은
광주에 누이시더라도
우리 속에 항상 같이 하소서
의의 서슬 푸른 칼과
훈풍이는 위트와 덕의 힘과 결로
저희와 함께 하소서
하늘이여
참 이 땅의 의인
치열하고
어지신 호민관
한승현 권사님을 받아주소서

그의 푸른 정신과 넋이
어지신 미소와 유모어가
우리 안에,
아픈 현실과 역사 속에서
항상 부활하고
현존케 하소서.

2022년 4월 24일

최자웅 신부

추모사-함세웅 신부

존경하는 한승헌 변호사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립니다.

“사법권을 권 법관 또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만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규범으로서 타당성을 잃지 않아야 하고 법관의 양심이 제대로 바탕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해서만 재판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만일 두 가지 전제 중 한가지만이라도 고장이 생긴다면 범죄를 다루는 재판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좌절된 당신의 소망이 명부의 하늘 밑에서나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조작한 유럽간첩단 사건으로 1972년 7월 13일 사형집행을 당한 김규남의원을 위해 쓰셨던 조사의 일부분입니다.

평생을 인권과 억울한 이들의 대변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법과 정의가 바로 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변호사님의 소망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변호사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변호사님은 검사로 법률가의 길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검사로서 역할보다 변호사로서 활동이 사회공동체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확신하시고 “법” 때문에 고통 받는 이들의 옆으로 오셨습니다.

법률가로서 삶을 시작하시면서 초심을 잃지 않으신 변호사님은 조사에 쓰신 것처럼 법과 양심에 따라 일생을 우리 사회공동체와 함께 하셨습니다.

변호사님은 ‘인권변호사’ 라는 말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법률가의 삶’ 그 자체가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재판하고, 변호하는 것이 바로 인권수

호이기 때문입니다.

군사독재정권에서 많은 수사와 재판이 법률가의 양심과 법률에 위반한 범죄였습니다.

판사, 검사가 저지르는 범죄행위에 변호사님은 양심에 따라 저항했고 그 불법성을 우리 사회공동체가 공유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사회가 변혁되기를 염원하시며 한결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변호사로서 평범하기를 바라신 그 꿈을 군사독재정권과 야합한 검사와 판사들은 반공법 위반으로 변호사님을 구속하여 292일간의 수감생활을 감내하셨습니다. 변호사님은 자신의 억울한 수감생활이 법률가들이 저지른 사회적 범죄행위에 대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임하셨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주변에 늘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유쾌함을 지니신 변호사님은 사람들 개개인의 인간적 가치에 충실했던 올곧은 삶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워하고 존경하고 본받아야 할 시대의 사표였습니다.

김대중정부에서 감사원장으로 부임하셨을 때 변호사님의 요청으로 잠시 감사원 자문위원으로 변호사님을 도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감사원장으로서 변호사님은 감사원 직원들이 직무 특성상 군인들보다 더 경직된 업무 환경이 개선되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복원하고 국가기관이 사회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인간성이 상실되면 사람들의 삶, 인간적 가치를 부정하게 되고 결국은 공동체의 근본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 직원들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먼저 생각하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모두가 인간의 선한 본성을 지키며 살기를 바라셨던 변호사님의 참 모습을 우리는 오래도록 기억하며 추모하게 될 것입니다.

검찰 제도 개혁에 대한 논쟁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삶이 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을 잃어버린 시대, 변호사님의 빈 공간이 더욱 큰 아쉬움으로 다가옵니다.

변호사님이 그렇게 바라신 인권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나라, 이제 이 자리에 모인 저희가 모든 힘과 정성을 모아 함께 실현할 것을 다짐합니다.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의 성실한 일꾼 한승헌 변호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어 주소서! 아멘.

변호사님,

이제 하늘나라에서 남북 8천만 겨레의 일치와 평화의 전달자가 되어주소서. 아멘

2022년 4월 24일

함세웅 신부

산민 한승헌(山民 韓勝憲) 변호사님 영전에

몇 사람이 한승헌 변호사님을 찾아뵙기로 의견을 모을 무렵,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는 소식이 들리더니 갑작스럽게 부고를 듣고 보니 망연자실할 따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하철을 타고 모임장소까지 오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었는데, 이제 우리는 어느 분을 모시고 가르침을 받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 좀 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했는데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미 너무 많은 역할을 해주셨으므로 편히 쉬시도록 हे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한 변호사님을 처음 뵈는 것은 198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창립할 당시였습니다. 그 전에 직접 만나 뵈는 적은 없었지만, 같은 고향(전북 진안) 출신의 큰 어른이셨기에 이십전심으로 더욱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어린 시절의 고향 마을이 용담댐에 수몰된 것에 대한 향수를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고향을 매우 각별하게 생각하셨기에 저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고, 저는 항상 이를 감사하게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민변 초창기에 변호사님께서 대선배 변호사로서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이시고 또한 신참 변호사들의 활동을 응원하고 격려해주셨습니다. 민변의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하시면서 동지애로 감싸 주셨습니다. 시국사건을 변론하는 변호사는 단순히 해당 사건을 변호하는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되고, 법정투쟁 자체가 역사이므로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지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변론한 사건의 자료들을 모아 7권의 변론사건 실록을 펴내셨고, 수많은 저서를 통해서 변론사건들을 정리, 평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에도 당시로서는 새로운 분야인 지적재산권을 공부하여 전문가가 되셨고, 서예를 익혀 일가를 이루셨습니다. 또한 변호사님께서

아무리 엄혹한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변호님이 계신 곳이라면 으레 웃음이 넘쳐났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뜻밖의 유머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웃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지라도 즐겁고 유쾌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법률가로서 삶의 자세를 세우는데 변호사님으로부터 깊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제가 변호사님과 더욱 가까이에서 일을 한 것은 2004년경 대학교를 경영하는 학교 법인의 이사회에서 저는 이사로, 변호사님은 이사장으로 활동할 때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사회를 진행하면서 학교 운영과 관련된 일들을 결정하고 처리하였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이사회를 개최할 때가 많았는데, 변호사님께서는 항상 먼저 와서 기다리셨고, 제가 시간에 맞춰 회의장에 들어올 때 복창조로 ‘선수 입장’이라고 하셔서 분위기를 띄우시기도 하셨습니다. 관선이사 체제를 마무리하고 정이사 체제로 환원된 시점이었기에 이런저런 민감한 일들이 있었지만 변호사님께서는 확실하게 균형을 잡고 올바르게 이끌어주셨습니다.

2005년 대통령 자문기구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2년 임기로 출범할 때 저는 기획추진단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하였고, 한승헌 변호사님께서는 국무총리(한명숙→한덕수)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아 위원회를 대표하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비상근직이었음에도 상근하시는 것에 준할 정도로 자주 사무실에 들러 모든 사항을 세심하게 점검하셨습니다. 각 기관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또한 권력기관 사이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는 쟁점들이 치열하게 부딪혔기 때문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나의 법률안을 완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2005년 5월에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문제로 평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한 변호사님께서는 경청과 인내로 결국에는 모든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된 방안을 도출해내셨습니다. 사개추위 의결을 기초로 하여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다음에는 국회의장단(김원기 의장, 이상득 부의장 등), 원내교섭단체의 대표와 원내대표 등, 관련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황우여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최연희→안상수 위원장) 위원장 등을 찾아가 입법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께서서는 당시 사개추위의 입법을 위한 활동을 “야당은 노무현 정부의 정책 실행의 ‘발목’ 을 잡았지만, 사개추위는 야당 의원들의 ‘손목’ 을 잡고 협조를 부탁하였다.” 고 표현하셨습니다. 사개추위 임기 말인 2006년까지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개추위가 해산할 때, 변호사님께서서는 “국회에 서는 되는 일도 없지만, 또 안 되는 일도 없다. 그 불가예측성에 기대를 걸어본다.” 는 말로 희망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2007년 4월 임시국회와 6월 임시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배심재판 법안, 로스쿨 법안이 기적같이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에 성공하였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씀대로 정치의 불가예측성이 작동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사상 사법개혁을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사법개혁비서관 직책을 신설하고, 법안 성안을 위해 법관, 검사, 교수, 변호사를 비롯하여 관련 공무원들까지 모여서 한 시기구를 조직하고 2년 동안 관련 모든 법안과 쟁점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여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모의재판, 관련 쟁점에 대한 용역 실시, 외국 시찰 등 폭넓은 조사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 역사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중심에 한 변호사님이 계셨기에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사개추위 작업을 같이 했던 사람들은 그 후에도 변호사님을 모시고 식사를 같이 하는 모임을 꾸준히 가져왔습니다. 당시 같이 만들었던 개혁안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 변호사님께서서는 제가 대법관에 임명되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변호사님께서 친필로 쓰신 “道非高遠”, 즉 ‘도는 높고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글을 조각한 목제붓통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 붓통을 통해 매일 한승헌 변호사님을 뵈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한승헌 변호사님의 지혜와 용기와 유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변호사님의 유머를 들으면서 사법개혁 작업에 매진하던 그 시절이 너무도 그립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찾아뵙고 마지막 인사라도 드렸어야 하는데, 끝내 찾아뵙지 못한 것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제가 세상에서의 소임을 마치고 명부에 가서 한 변호사님을 뵈 때,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변호사님께 설명 드리면서 부끄럽지 않도록 근신하

고 노력하겠습니다. 명부에서 뿔 날까지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24일

못난 김선수가 산민 한승헌 변호사님을 그리워하며 영전에 바칩니다.



한승헌 변호사가 김선수 대법관에게 선물한 목제붓통

추모사-김영주 목사(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 상임이사)

존경하는 한승헌 변호사님

하나님의 품은 어떠하십니까? 저희들은 이 땅의 인권을 위해 헌신하시다 모진 감옥에서 출소하신 후 가족들에게 가정예배를 제안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다 나를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셨다. '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척 반가워하시지요? 하나님을 직접 뵈옵고 변호사님께서 품었던 소망을 말씀드려 주셔서, 오늘 변호사님을 하늘나라도 보내고 못내 아쉬워하고 있는 저희를 위로해 주세요. 건강의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변호사님을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저희는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변호사님은 저희에게 '사람 사랑'의 참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야만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불의한 세력들은 분단을 이용하여 반공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어디에도 인권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용공 좌경 주의자라고 배척당하고 탄압받았습니다. 변호사님께서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그 서슬 퍼런 군사독재 체제와 맞서 싸우셨습니다.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을 모으고 격려하며 NCKK 인권위원회 등을 통해 체계적인 인권운동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불의한 권력은 변호사직 박탈, 징역형 등으로 변호사님의 활동에 재갈을 먹이기 위해 탄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라는 믿음을 가진 변호사님의 신념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변호사님의 인권운동의 길에 많은 이들이 동참하게 되었고, 제2의, 제 3의 인권운동이 한국 사회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변호사님께 빛진 자들입니다.

변호사님은 원칙 있는 삶을 살았던 분이셨습니다. 자신에게 엄격한 만큼 원칙 있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면서도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불의한 시

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경험해본 바 있을 듯하지만, 특히 변호사님 같은 법조인에게는 많은 유혹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원칙과 관대를 적절히 섞어 사용하면서 결정적인 타협이 아니더라도, 조금만 모른 척했다라면 아마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원칙 있는 삶을 살아가다가 굴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목도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원칙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힘입는 자들에게는 관대를, 약자에게는 원칙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님께서서는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원칙을, 약자들에게는 관대함을 보여 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은 여유로운 삶을 살았던 분이셨습니다. 우리 모두 경험하는 바이지만,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분노가 쌓일 수 있고, 엄중한 세월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여유가 깃들 자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유머는 촌철살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분주한 삶을 시로 엮어 내는 여유 그 자체였습니다. 아직도 잊혀 지지 않은 변호사님의 유머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라고 신앙의 교훈을 주셨는데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감사원장을 시켜 밤낮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 경직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간하지 못하고 있을 때 변호사님은 유머로 우리의 삶을 너그럽고 유쾌하게 해주셨습니다.

인권운동의 말석에서 서 있었던 저로서는 변호사님의 크고 깊은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신하기는 하나님께서 변호사님을 크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가신 어머님께서도 무척 뿌듯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우리도 변호사님에게 깊은 존경과 사람의 마음을 전합니다. 변호사님, 혹 인권의 가치가 폄훼되는 세상이 될까 두렵습니다. 저희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모사-명진 스님(사단법인 평화의 길 이사장)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 대나무의 깊은 뿌리를 생각하며
고 한승헌 변호사님 영전에 바칩니다.**

변호사님, 한승헌 변호사님!

명진입니다.

승적을 박탈당하고 세간을 떠도는 저의 곁에 오셔서

냉면 한 그릇 넉넉히 나누시며

힘든 시절에도 웃으며 가자고 하셨던 한승헌 변호사님,

고마운 마음, 존경의 마음 다 드리지 못했는데

그에 먼 길 떠나셨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잊고 사는 저 캄캄하던 시절,

불의의 검은 칼날에 쓰러져가는 못사람들과 어깨 곁고

온몸이 방패 되어 맞섰던 한승헌 변호사님!

무도한 권력에 맞서 인간을 변호하다

스스로 영어의 몸이 되기도 하셨던 변호사님!

다시 칼이 춤추고

인간의 권리가 무질러지는 이 시대,

먹장구름이 시커멓게 몰려오는 지금

한. 승. 헌 변호사님,

그 이름 다시 한 번 불러봅니다.

백 선생님이 가신 지도 얼마 되지 않았건만

변호사님마저 보내게 되니

저희의 마음은

의지처를 잃은 듯 또 한 번 휘청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어렵고 힘든 시절에도 해학과 풍자로

저희에게 여유와 즐거움을 주셨던 변호사님을 생각하기에

이대로 무릎 꿇을 수는 없습니다.

꽃꽂한 대나무는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결코, 꺾이지 않고 부드럽게 다시 일어선다는 걸

뿌리 깊은 대나무는 그렇다는 걸

변호사님은 가르쳐 주셨지요.

뿐입니까.

인간의 삶이 높은 자리에 있지 않고

세상과 더불어 웃고 우는 것에 있음을

변호사님께서서는 몸소 가르쳐주셨지요.

앞길은 어둠이 깊다 하지만,

변호사님께서 가신 그 길을 이어

저희도 걸어가겠습니다.

변호사님처럼 저희 마음에

쉬이 꺾이지 않을 뿌리 깊은 대나무 한 그루 심어

크고 깊고 푸르른 대숲을 이루겠습니다.

뿌리 깊은 대숲이 되어

함께 노래하고

함께 일어서겠습니다.

2022년 4월 24일

명진 손모음.

노제 추모사-김승수 전주시장

고 한승헌 변호사님!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는데
결국 헤어짐의 시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저에게는 늘 변호사님이자 선생님이셨고
선배님이자 스승이었습니다.

그저 존재해 계신 것만으로도
제 삶을 일으켜 세워주셨고
제가 흔들리고 혼미할 때마다
가차 없는 시선으로 정도(正道)를 알려주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사람다운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전북대학교를 상징하는
우뚝한 산이었고
전주와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시대의 지성이자 삶의 지표였습니다.

없는 길을 헤쳐 나아가 길을 만들었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어둔 밤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시대가 우리를 속이고 비탄에 빠지게 해도
선생님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는 길,
보나 마나 질 것이 뻔한 싸움에 먼저 뛰어들어
시대의 나침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토록 힘든 싸움을 하면서도 유머를 잃지 않았고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빛을 길어 올리는 데
전 생애를 걸었습니다.

고향 사랑은 또 얼마나 깊었습니까?
시시때때로 걸음하여 고향의 갈증을 살피고
사람들의 마른 가슴에 웃음과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전령사처럼 시대와 시대를 날아다니며
사상의 기둥이자 삶의 거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법조인이 법 조항에만 기댄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뜨거운 가슴으로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누구보다 섬세한 시선으로

시를 쓰는 문인이었고
유머책과 스피치책을 저술할 정도로
사람에 대한 사랑과 정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갖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것들을
결코 혼자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부정과 반인권 앞에서는 서슬퍼런 단호함으로 투쟁했고
민주와 인권의 가치에 온 인생을 바치셨습니다.

그런 당신의 삶을 이제는 과거의 이야기로,
역사 속의 한 장면으로 추억해야 하는 현실이
그저 참담하기만 합니다.

풀기 어려운 난제를 만날 때마다
언제나 가장 먼저 떠올렸던 선생님!
명쾌한 논리와 판단으로
우리를 지지해 주신 선생님!
육신은 비록 저희 곁을 떠나지만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우리 곁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남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각박해도
마음 한구석엔 늘 웃음이 들어갈 자리를
비워두라” 고 하셨던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길에는

선생님을 닮은 따뜻한 유머와 위트가
꽃처럼 깔려있을 것입니다.

고통과 눈물보다는
아픔을 이겨내는 웃음과 유머로
선생님의 삶을 기억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시인이었고
가슴 뜨거운 인권변호사였으며
우리 모두의 스승이자
시대의 현자였던 선생님을
영원히,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의 발걸음이 스며있는 전주 곳곳에서,
이별을 슬퍼하는 모든 시민과 함께,
온 마음을 다해 명복을 빕니다.

우리 시대의 스승님이시여, 고이 가소서!

노제 추모사-황민주 전북시민사회단체 대표

고향 선배님이시라 그동안 형님이라 불렀지만, 서울 빈소에 가보니 '권사 한승현'이라 써있음을 보고 호칭을 권사님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권사님의 소천소식을 듣고,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낼 말을 찾지 못하고 세상이 캄캄해짐을 느꼈습니다. 권사님의 고귀한 삶을 무슨 말로 표현하오리까.

한평생을 약자의 편에서 공의와 사랑의 편에서, 독재정권 시절엔 죽음을 각오하고 변론을 하시면서 올곧게 살아오신 한국의 큰 어른을 잃은 큰 슬픔이 너무도 컸습니다.

그리하여 대통령님께서 빈소가 차려지자 즉시 조문하시며 애통해 하시는 등 모든 국민과 언론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며 그동안 보여주신 고귀한 삶을 영원히 기억하자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 바쁘신 중에서도 고향과 모교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모습은 더욱 저희가 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권사님! 저는 빈소를 다녀오면서 슬픔과 안타까운 마음을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권사님은 확실히 천국에 입성하셨다고 생각되어 슬픔과 안타까운 마음 대신에 감사와 축하를 드리는 편한 마음을 갖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권사님! 이제는 모든 일 후배들에게 다 맡기시고 근심 걱정 고통 없는 곳에서 편히 쉬시면서 이 나라 이민족. 고향과 모교를 위하여 걱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감사합니다.

산민(山民)을 기억하다-쿠시자키 히로시(일본평론사 대표이사)

친애하는 한승헌 선생님께

한승헌 선생님의 서거에 즈음하여 직접 조문하지 못하는 무례를 사죄드리며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과 깊고 넓게 교류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한승헌 선생님 덕분입니다. 지금 선생님에 대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선생님을 처음 뵈는 것은 2007년 10월 31일, 교토(京都)의 리츠메이칸(立命館)대학이 김대중 선생님을 초청한 강연회 때였습니다. 저는 당시 『법률시보』라는 잡지의 편집장으로 리츠메이칸 대학의 오쿠보 시로(大久保史郎) 교수의 호의로 한국의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 선생님께 말씀을 여쭙 수 있었습니다. 그 만남이 인연이 되어 그 뒤 2008년 2월 이와나미서점(岩波書店)에서 출판된 『분단시대의 법정』 출판기념회에 초대를 받아 참석했을 때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니 서울에서 뵙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갑자기 무리한 부탁을 드렸음에도 선생님께서는 쾌히 허락해 주셨고 그 해부터 매년 서울과 도쿄(東京)에서 업무 이외에도 깊고 친밀하게 교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선생님의 법조 55주년을 기념한 출판사업 가운데 『일한의 현대사와 평화·민주주의를 생각한다(日韓の現代史と平和・民主主義に思う)』라는 책을 제가 일하는 일본평론사에서 간행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축하모임에서는 김영환 씨의 통역을 통해서 많은 한국 분들 앞에서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또한 사모님과 일본평론사를 방문해 주셔서 회사 근처의 호텔에서 『일한의 현대사와 평화·민주주의를 생각한다』의 출판기념회를 가진 것도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때 참석해 주신 전주에 계신 분의 안내로 뒷날 선생님의 고향 전주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조선침략의 구실이 된 ‘동학농민혁명’의 땅을 직접 찾아볼 수 있었던 것도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께서서는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 감사원장을 맡으셨을 뿐만 아니라 김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운동에 앞장 서 오신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선생님 덕분에 ‘김대중도서관’을 몇 차례나 방문할 수 있었고, 이희호 여사님도 뵈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 도서관에 가자(金大中図書館へ行こう)』라는 일본어 책자를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선생님께서 내용에 대해 조언을 해주시고 도서관의 사진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일본의 근현대 역사 속에서 일본이 한반도, 그리고 중국에 대해 메이지(明治)시대부터 1945년 패전까지 계속해 온 침략행위에 대해 사죄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지 않은 일본정부의 자세를 전환해야만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같습니다. 나아가 일본의 시점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일본의 가혹한 식민지 정책과 군사정권 시대에 민주화를 위해 싸워 오신 선생님과 한국의 여러분들로부터 한국의 시점에서 본 살아있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과거의 문제, 남북 분단의 역사를 통해서 평화와 민주주의를 쟁취한 한국 여러분들의 투쟁에 대해 배울 기회를 주신 것도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언제, 어디에서 뵈어도 웃는 얼굴로 저를 맞아주시며 한국과 일본에서 일어난 최근의 사건부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제 질문에 일본어로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깊고 고귀한 인간성을 접할 때마다 ‘사람의 삶의 태도’에 대해 배우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국가, 민족을 뛰어넘는 공생, 평화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한승현 선생님, 일본인인 저에게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래에 선생님을 뵈 때에는 한국어도 조금은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때까지 잠시 동안의 이별입니다.

지금은 아무쪼록 편히 쉬십시오.

합장(合掌)

2022년 4월 21일

쿠시자키 히로시 | (串崎 浩, 일본평론사 대표이사)

산민(山民)을 기억하다-임헌영 문학평론가(경향신문 기고)

시인·휴머니스트이자 해학가였던 '한변'..당신의 유머가 그림습니다

한승헌 변호사님 영전에 바칩니다

존경하는 한승헌 변호사님, 구순을 기어이 못 맞으시고 이렇게 황망히 우주 삼라만상의 순회에 드셨습니까.

작년 9월, 산민 한승헌 변호사 기념문집 <산민의 이름으로>(이지출판)를 펴내시면서 생의 마지막 잔치로 출판기념회를 고대하셨지만 코로나로 무산되면서 전화로 인사를 대신하셨지요. 건강 문제로 뵈올 기회가 드물어져 안타까웠지만 ‘두뇌와 입’은 지장이 없다시기에 전화로라도 “제발 그 재담 계속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빈다”고 저는 썼지요. 문안 전화 때마다 유머를 날리시기에 버나드 쇼를 능가하는 재담으로 이 세상 더 즐겁게 만들다가 가시겠다면 저승사자도 양해할 거라니까, “그 잡귀가 혼자 돌아가기 심심해 꼭 나를 데려갈 거요” 하신 게 저와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55킬로그램 뱀뱀급 육신으로 그 많은 직함에 팔방미인으로 우리 시대의 모든 과업에 투신했지만 ‘한변’이란 애칭으로 통했던 분, 어떤 장중한 모임에서도 반드시 웃음의 명편치를 날려 좌중을 즐겁게 해주신 해학가에 휴머니스트, 율사란 본업 못지않게 온갖 잡사에 능하셨던 한승헌 변호사님.

무진장 3개 군 중간인 고향 진안을 ‘무주 구천동 옆 팔천동’으로 소개하시며, 아호 산민이 행여 빨치산이냐면, “변호사라서 운동이라면 석방운동”만 했다며, 한국의 헌법을 어긴다는 본명 때문에 두 번이나 옥고를 치르셨다던 분.

한국전쟁이 일어난 해에 고교생으로 시 창작을 하다가 대학생 때는 신석정 시인에게 격려까지 받았으나 약관 23세에 고시 8회 합격으로 서울지검에 근무 중 1965년부터 변호사를 본업 삼고 민주화에 전념한 생애는 널리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검사와 변호사 초기였던 1960년대에 5·16 쿠데타 정권의 반역사성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한 두 권의 시집은 지금도 절박하게 다가옵니다. 현직 검사로 시화전을 열고 첫 시집 <인간귀향>(1961)을 낸 데 이어 제2 시집 <노숙>(1967)에서 한승헌 시인은 우리 시대를 “검에 밀리던 붓”의 연대로 규정하고, 자신을 “목 메인 사슴 마냥/ 어쩔 수 없이 준령과 맞서야 할” 처지라고 한탄했습니다. 사슴이 살았던 시대는 “주름진 조국의 차가운 겨울/ 빙하 29도/ 역사는 노천”에 떠는 동토의 계절로, “분 바른 식민지의 하늘에/ 태양은 슬프게 뜨고 진다”고 하셨습니다.

절박해진 사슴은 “이제 목자는 없다/ 우리 스스로 메시아가 되는 것이다”라며, “그 붓으로 기어이 검 이겨내고자/ 어둠을 쫓개는 안간힘”으로, “제 몸 태워 어둠 밝히는/ 한 자루 촛불”로 승화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내 땅의 평화와 민주와/ 그리고 하나 됨을 위하여/ 꽃이 꽃으로 피고/ 노래가 노래로 울려 퍼지는/ 그날을 찾아가는 발걸음/ 그대여/ 다시 떠나지 않으려는가./ 이 벽찬 역사의 나그네 길을…”이라고 채근합니다. 시인 한승헌에게 “산다는 것은 하나의 진실을 마련하는 일인가/ 그것은 외로운 작업/ 벽차고 눈물겨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개탄이 어찌 1960년대만이겠습니까! 그 뒤에도 반복되는 우리 민족사 아닌가요?

엄청난 한변의 업적 중 김삿갓을 능가하는 해학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지요. “8·15 해방 후의 대립과 혼란, 남북한의 전쟁, 장기집권, 군사독재, 저항과 투쟁 등 연속된 광풍 속에서 무슨 즐거움, 무슨 기쁨이 있었겠는가. 가난과 절망, 피폐와 탄압 따위의 불운한 팔자 속에 무슨 웃을 일이 있었겠는가” 라면서 “대중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는 것도 지식인의 한 사명”으로 여긴 데서 한변의 유머는 비롯했습니다.

아, 이제 어디서 웃을 일을 찾지요?

저희 민족문제연구소에 주신 소중한 자료를 소원하신 대로 널리 활용하겠습니다.

한변님, 지극히 사적인 모임으로 언론자유를 맘껏 누렸던 ‘으악새’와 ‘개판모임’의 저승 선배들(리영희, 장을병, 박현채, 윤현, 김상현 등)에게 여기서와 똑같은 유머로 이승의 못다 풀 한을 달래며 편히 쉬시기를 빕니다. 안녕하…!

2022년 4월 22일

임헌영 문학평론가

산민(山民)을 기억하다-조영관 변호사(한겨레 기고)

하나의 진실' 향한 소명...답고 싶은 시대의 큰 어른, 한승헌

- 한승헌 변호사를 기억하며

말이 넘치는 세상이라지만, 한승헌 변호사님을 떠나보내는 슬픈 마음을 담아낼 문장을 쉽게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 시대의 큰 어른인 변호사님의 지난 삶을 감히 평가하는 것은 부족한 저의 껌냥을 벗어난 일이라, 짧은 시간이었지만 변호사님과 함께 보냈던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는 것으로 추모의 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변호사가 되고, 신참내기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던 2016년 겨울 한승헌 변호사님과 처음으로 간단한 일을 같이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일' 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민망한 단순 사무였지요. 한승헌 변호사님의 모교인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민변에서 발간한 책 중에서 여분이 남아 있는 책이나, 소장하고 있는 책과 자료들 중에서 여분이 있어 함께 보낼 수 있는 책들을 선별한 뒤 포장해서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내용을 전달받아 준비하던 중 변호사님께서 직접 연락을 주셨습니다. 늘 먼발치에서 뵈었던 대선배님과의 갑작스러운 통화로 조금 긴장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언제나처럼 단번에 상대방을 무장 해제 시키는 특유의 유머와 위트를 발휘하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민변의 책이 대학 도서관에 비치되어서 민변의 간판이 빛난다면 그 공로는 전적으로 조 변호사가 아니라 나에게 있지요. 민변의 간판 글씨를 내가 썼으니깐요" 라고 하시며 저의 긴장(?)을 살포시 풀어주셨습니다.

사실 '잘 부탁한다' 는 짧은 한마디로 충분할 수 있는 통화였는데, 변호사님께서서는 차분하게 왜 본인이 이런 부탁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주시고, 수고에 감사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마치 마주앉아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이 상대방의 진심이 느껴졌던 경험이라 그 뒤로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민변 사무처에서 고생하고 있는 '일꾼' 들의 이름을 남몰래 알려달라고 하시고선, 직접 한명 한명의 이름을 친필로 담은 시집 <하얀 목소리>를 선물로 보내 주셨습니다. 그때 '내가 민변에서 책을 좀 빌려간 셈이니, 이자를 곱절로 보태 책

으로 값졌다’ 고 하였고, 결국 얼마 뒤 변호사님의 저서와 옥중에서 공부하셨던 저작권 분야의 귀한 전공서적들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게다가 몇 년 전에는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공익소송을 위한 변론기금을 모으는 후배들을 위해 ‘시민변론기금’이라는 글씨를 손수 써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처음, 변호사님을 보면서 참 닮고 싶은 어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또래는 변호사님께서 법정에서 활약하시던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삶을 잘 알지 못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쓰셨던 자서전 <한 변호사의 고백과 증언>을 비롯한 저작들과, 그리고 얼마 전 출간된 <한승헌 변호사의 삶—균형과 품격>을 통해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을 뿐입니다.

책에서 만난 변호사님께서서는 암흑의 시절에 진실의 불꽃을 지켜오셨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묻지 않았던 유신시대 법정에서 변호사님은 모든 법률가의 귀감이 되는 성실하고 훌륭한 변론을 하셨습니다. ‘법대 위에서 진실에 침묵하는 판사들이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하도록’ 법리에서도 한 치의 부족함이 없으면서도, ‘법정에 선 피고인들이 조금이라도 위축되지 않도록’ 피고인의 투쟁의 정당성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변론하는 용기 있는 변호인이셨습니다. ‘분지 필화사건’ ‘동백림 사건’ ‘오적 필화사건’ ‘민청학련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등 시대의 진실이 담긴 사건들에서 변호사님은 온몸으로 ‘하나의 진실’ 을 지켜내는 외로운 소명을 언제나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얀 수의를 입고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히 법대를 노려보는 변호사님의 사진에는 진실을 지켜온 파수꾼의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된 김규남 의원을 애도하는 수필 ‘어떤 조사(弔辭)’ 를 썼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다른 한번은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의 피고인으로 두 차례 옥고를 치르고 8년 동안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는 상황에서도 변호사님은 삶에 대한 여유와 유머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수감을 ‘감옥 재수’ 라고 부르시며, 옥중에서 그때만 하더라도 국내에 낯설었던 새로운 학문인 저작권을 공부하셨습니다. 민주화 이후 감사원장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올바른 감사제도와 사법개혁에 헌신하셨던 변호사님은 말 그대로 우리 시대의 큰 어른이셨습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의 변론을 잘 수행해야 하지만 재판에 정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때, 그 실상을 기록해서 동시대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 다음 세대에 이를 전해줄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변호사로서 변론의 기록을 성실히 남기셨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수감되고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 상황에서도 ‘삼민사’라는 출판사를 설립하여 시집, 산문집, 논문, 법학전문서적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40권이 넘는 성실하고 방대한 시대의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출판사 경영이 법조인으로서의 예상치 못한 ‘외도’라고 하시면서도, ‘그 외도는 탈선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고 인심의 따스함과 차가움을 아울러 체험하여 삶을 성숙하게 해준 수확이라 하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서는 늘 스스로 인권변호사라고 소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라면 모름지기 인권 변호가 본연의 업무인데, 본업을 하는 사람을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공 차는 축구선수’ ‘헤엄치는 수영선수’와 같은 동어반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권변호사라고 부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변호사 스스로 자신이 ‘인권변호사’라고 불리는 것에 경계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배웠습니다.

또한, 변호사님께서서는 ‘나를 의롭다 믿고서 남을 하대하지 말자’고 하셨습니다. 여야로 나뉘어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격해지고 있는 요즘, 변호사님께서 세상 끝까지 가서 마주하신 지혜와 균형의 품격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승헌 변호사님의 시 ‘노숙’의 한 문장을 소개하는 것으로 부족한 추모의 글을 맺습니다. 변호사님, 보고 싶습니다.

“산다는 것은 하나의 진실을 마련하는 일

그것은 외로운 작업

벽차고 눈물겨운 일이다.”

2022년 4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조영관 변호사

추모 성명-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대의 큰 어른, 산민(山民) 한승헌 변호사님을 추모합니다

말이 넘치는 세상이라지만, 변호사님을 떠나보내는 우리 모임의 애절한 마음을 담아 낼 문장을 감히 찾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단번에 좌증을 무장해제 시켰던 변호사님의 유머와 위트, 민변 변호사라면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죽비 같은 일갈, 모임에 방문한 모두가 부러워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현판과 불과 얼마 전 몸이 불편하신 중에도 공익소송을 하는 후배 변호사들을 위해 ‘시민변론기금’ 글씨를 직접 써주셨던 모임에 대한 애정과 헌신, 서른넷 민변이 지나온 모든 순간에 한승헌 변호사님의 모습이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묻지 않았던 유신시대 법정에서 변호사님께서서는 모든 법률가의 귀감이 되는 성실하고 훌륭한 변론을 하셨습니다. ‘법대 위에서 진실에 침묵하는 판사들이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하도록’ 법리에서도 한 치의 부족함이 없었고, 법정에서 선 피고인들이 조금이라도 위축되지 않도록 투쟁의 정당성에서도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용기 있는 변호인이셨습니다. ‘분지 필화사건’, ‘동백림 사건’, ‘오적 필화사건’, ‘민청학련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등 시대의 진실이 담긴 사건들에서 변호사님은 온몸으로 ‘하나의 진실’ 을 지켜내는 외로운 소명을 언제나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된 김규남 의원을 애도하는 수필 〈어느 사형수의 죽음 앞에서 - 어떤 조사(弔辭)〉의 반공법 위반으로, 다른 한 번은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피고인으로 두 차례 옥고를 치르고,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는 상황에서도 옥중에서 새롭게 저작권을 공부하고, 삶에 대한 여유와 유머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민주화 이후 감사원장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올바른 감사제도와 사법개혁에 헌신하셨던 변호사님은 우리 시대의 큰 어른이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서는 늘 스스로 인권변호사라고 소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라면 모름지기 인권 변호가 본연의 업무인데, 본업을 하는 사람을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

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인권변호사를 부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변호사 스스로 ‘인권 변호사’ 라고 불리는 것에 경계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배웠습니다. 또, 나를 의롭다 믿고서 남을 하대하지 말자고 하셨습니다. 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강한 자를 바르게 하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갈수록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격해지고 있는 요즘, 변호사님의 지혜와 균형이 더욱 그립습니다.

변호사님께서서는 변호사는 법정에서의 변론을 잘 수행해야 하지만 재판에 정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때, 그 실상을 기록해서 동시대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 다음 세대에게 이를 전해줄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자서전 <한 변호사의 고백과 증언>을 비롯해 시집, 산문집, 논문, 법학전문서적 까지 폭 넓은 분야에서 성실히 써내려간 방대한 시대의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모임은 진실을 기록하고 밝히려 치열하게 노력하셨던 솔직한 삶, 인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유머와 여유를 가진, 언제나 닳고 싶은 참 인간으로서 모습을 모든 회원들과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한없는 그리움으로, 변호사님의 발자취를 오랫동안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편안히 영면하시길 기원합니다.

2022년 4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도형

추모 성명-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故 한승헌 변호사님을 추모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이하, 민변 전북지부라 함, 지부장 변호사 김용빈)는 전북 출신으로서 1988년 5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족에 참여하시고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위해 헌신하셨던故 한승헌 변호사님을 추모합니다.

1965년故 한승헌 변호사는 짧은 검사 생활을 마치고 개업한 후 수많은 시국사건, 인권사건 변호를 마다하지 않고 맡아 그 소임을 다하셨습니다. 변호사로서 변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국사건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1975년 반공법으로 구속되기도 하고, 1980년 5월에는 이른바 ‘김대중내란음모사건’으로 계엄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옥고를 치르시기도 하셨습니다.

민주 정부 집권 이후에도 감사원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며 민주적 제도의 기틀을 닦는 데 힘을 쓰셨습니다.

고인이 지나온 길은 누구도 쉬이 감내하기 어려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변호사’라는 칭호에 대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을 언급하면서,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규정한 사명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후배 변호사인 민변 전북지부 회원들은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던故 한승헌 변호사님의 길을 기억하고 이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고인께서 “법조인은 기능적 역할에 안주하지 말고, 보편적인 가치 추구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며, 미해결 과제라고 말씀하신 “사회권적 기본권의 확립과 인간의 존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평등사회의 건설”을 위해 매진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끝.

2022년 4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민주·인권 한승헌 변호사님을 추모하며

반(半)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한국 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인권의 살아있는 최후의 보루였던 한승헌 변호사가 별세했다.

고 한승헌 변호사는 1965년 이래 암울한 군부독재에 분연히 맞서서 이 땅의 자유를 위하여 민주화 운동을 수행하였다가 탄압을 받는 이들의 곁을 지키며 권력과 사법부에 맞서서 정연한 논리와 대쪽처럼 곧은 소신으로 흔들림 없이 그들의 인권을 지켜냈다.

고인은 ‘분지 필화사건’ (1965)에서 시작하여 동백림 사건(1967), 통일혁명당 사건(1968), 민청학련 사건(1974), 인혁당 사건(1975),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1980),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2004)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사에 명확한 족적을 남길 굵직한 시국사건을 도맡아 정의의 편에 선 변호사가 강력한 권력에 맞서서 어떻게 싸우고 처신해야 하는 지를 언행과 품행으로 보여주었다.

고인은 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몇몇 인권 변호사들의 ‘법정의 곧은 말’ 로는 부족하여 전 국민을 향하여 인권을 수호하고 정론직필을 펼칠 길을 냈다. 그는 모두가 박정희·전두환 두 군부독재자의 위세에 눌려 엎드려 있을 때 군부, 권력, 자본에 아부하는 언론들이 쏟아내는 말들에 맞서서 국민의 진정한 자유와 인권과 진리를 대변할 신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뜻있는 이들과 함께 군부독재정권에서 해직된 기자들을 모아 국민주 신문 <한겨레>를 창간하고 그 위원장을 맡았다. 이어서 권력의 총칼과 자본의 유혹에 추호도 흔들리지 않으며 시국 사건마다 변호를 한 이들과 함께 정법회(정의실천 법조인회)를 조직하고 이를 모태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을 만들었다.

우리 재단의 백기완 선생님이 긴급조치 1호로 서슬퍼런 군사법정에 서셨을 때엔 당당하고 명확하게 무죄임을 변론하셨을 뿐만 아니라 늘 가장 가까운 동지로 연대하였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복직, 김진숙 지도위원 복직, 김용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명진스님 제적 철회를 위한 원로모임 등 사회원로들의 목소리가 필요할 때마다 주저 없이 나서며 백기완 선생과 함께 하였다. 그는 대쪽 같으면서도 늘 유머를 좋아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성품을 지녔다. 백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다음 차례라고 말씀하시더니 기어이 그 마지막 말씀까지도 실천하셨다.

우리 재단은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사회적 약자의 고통이 심화된 암울한 시대를 맞아 한국 사법부의 가장 큰 별이 진 것을 가슴이 저리도록 애석하게 생각한다. 고인께서 유신도, 독재도 없는 곳에서 편히 쉬시기를 바라면서 그 빈자리를 우리의 투쟁으로 메우리라 다짐한다.

2022년 4월 21일

백기완노나메기재단

추모 신문광고

경향신문 신문광고(2022년 4월 23일)

인권옹호와 민주사회 실현에 앞장서신
산민(山民) 한승헌 변호사님
 영편을 기원합니다.



- 약 령**
- 1934.9.29. 전라북도 진안 출생
 - 1957.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 1965. 분지법리(地地法理) 사건 변호 (지각 사건 1호 변호사)
 - 1974. 인학당 재건위 사건 변호
 - 1975. 반공법 위반으로 연행 9개월간 옥살이로 변호사 자격 정지
 - 1978. 출판사·잡지사 설립
 - 1980. 김대중·박정희로사건으로 투옥
 - 1998-1999. 제17대 감사원 원장
 - 2018. 국민훈장 무궁화장

산민(山民) 한승헌 변호사 민주사회장

- 장례 일정**
- 일 정 | 2022. 4. 21.(목) - 4. 25.(월) 5일
 - 빈 소 | 서울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 일 관 | 2022. 4. 22.(금) 13:00
 - 일 발 | 2022. 4. 25.(월) 08:50
 - 화장 장소 | 서울주모공원
 - 노 제 | 2022. 4. 25.(월) 14:00-15:00 전북대학교
 - 장 지 | 광주 5.18 민주묘지
- 장례위원회**
- 상임장례위원장 | 황세용 신부
 - 공동 상임장례위원장 | 김도형 민변 회장, 박래근 4·16재단 상임이사, 안지중 한국교회연대 집행위원장
 - 호상 | 박용일 민변 참립회원, 박종필 목사, 장영달 민청학련동지회 상임대표
- 추도식**
- 일 시 | 2022. 4. 24.(월) 오후 5시
 - 장 소 | 서울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예식실(2층)

산민(山民) 한승헌 변호사 민주사회장 장례위원회

한겨레 신문광고(2022년 4월 25일)

인권옹호와 민주사회 실현에 앞장서신
 故 **한승헌 변호사님**의 영편을 기원합니다

산민(山民) 한승헌 변호사 민주사회장장례위원회

1. 장례위원회(장례총괄) | 황세용 신부(위원장) | 안지중 목사(위원장) | 호상 | 박용일 민변 참립회원, 박종필 목사, 장영달 민청학련동지회 상임대표

2. 장례 일정

- 일 정 | 2022. 4. 21.(목) - 4. 25.(월) 5일
- 빈 소 | 서울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 일 관 | 2022. 4. 22.(금) 13:00
- 일 발 | 2022. 4. 25.(월) 08:50
- 화장 장소 | 서울주모공원
- 노 제 | 2022. 4. 25.(월) 14:00-15:00 전북대학교
- 장 지 | 광주 5.18 민주묘지

3. 장례위원회

- 상임장례위원장 | 황세용 신부
- 공동 상임장례위원장 | 김도형 민변 회장, 박래근 4·16재단 상임이사, 안지중 한국교회연대 집행위원장
- 호상 | 박용일 민변 참립회원, 박종필 목사, 장영달 민청학련동지회 상임대표

4. 추도식

- 일 시 | 2022. 4. 24.(월) 오후 5시
- 장 소 | 서울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예식실(2층)



산민(山民) 한승헌 변호사 민주사회장 장례위원회 명단

산민(山民) 한승헌 변호사 민주사회장 장례위원회

고문

고영구 고은 권낙기 김금수 김상근 김세균 김영옥 김원기 김자동 김준기 김판수 김해섭 문규현 문정현 박석무 박성민 박중기 방동규 백낙청 송기인 신경림 안영도 안재웅 안학섭 양희철 염무웅 윤형두 이부영 이재정 이해동 이해찬 이해학 임방규 임재경 임진택 임현영 정동익 정성현 정세균 정재돈 조화순 차선각 최병모 한완상

상임장례위원장

함세웅 신부

공동장례위원장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진윤식,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이수,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장현권 윤청자 김승원, 국민총행복전환포럼 박진도, (사)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신민정,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우성구, 긴급조치사람들 유영표, (사)김병곤·박문숙기념사업회 이종구, (사)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송경용,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허육,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종민, (사)민족미술인협회 이승곤,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장현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이종걸,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한정희, 민주노총법률원 권두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도형,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조순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선스님, 박형규기념사업회 권호경, 백기완노나메기재단 신학철, 빈민해방실천연대 남경남 최영찬, 산민회 함광남, 새언론포럼 이완기, 생태문명원 한윤정, (사)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장신환, 유신청산민주연대 김재홍,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회 이창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희영,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장남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사)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허진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양옥희, 전국여성연대 한미경,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장진희, 전두환심판국민행동 김명신 전태삼, 전북민주동우회 김영일, 전북여성단체연합 박영숙, 전북지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신형우,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권오현 김호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이태형, 진보당 김재연, 참여연대 진영중 한상희, 천도교청년회 이재선, 천안역사문화연구회 이용길, 천주교인권위원회 김형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김영식, 70년대민주노동운동동지회 임현재, 통일광장 권낙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사)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 김영주, 한국기독교사회발전협회 이삼열,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KSCF 인영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김평수, 한국여성단체연합 김민문정 김윤자 양이현경, 한국작가회의 윤정모,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한충목 김재하 문경식, 한국청년연대 김식, 한신민주화운동동지회 전병생, 합수윤한봉기념사업회 김은경

유족

김송자 한규면 한규무 한경미 한규훈 이정원 최유미 이승희 윤종슬 한상진 한형진
한승진 한상은 윤승수

호상

박용일(민변 창립회원), 박종렬 목사, 장영달(민청학련동지회 상임대표)

상임집행위원장

김도형(민변 회장), 박래군(4.16재단 상임이사), 안지중(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공동집행위원장

의전위원장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운구위원장 양동규(민주노총 부위원장), 조일래(산민회 부회장), 조직위원장 조영선(민변 부회장), 총무위원장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문화예술위원장 양기환(백기완노나메기재단 이사), 홍보위원장 조수진(민변 사무총장)

장례위원(단체)

경북대학교민주동문회, 경북대학교법과대학민주동문회, 경제민주화와평화통일을위한 국민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YMCA,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사)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군인권센터,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긴급조치사람들, (사)김벽곤·박문숙기념사업회, (사)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대전블루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유족회, 동학실천시민행동, 동학혁명기념관, (사)마당, 민족문제연구소, (사)민족미술인협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주노총법률원,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자김근태경제·인문·평화대학,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청학련동지회, (사)박형규목사기념사업회, 백기완노나메기재단, 법무법인맑은뜻, 빈민해방실천연대, 4.9통일평화재단, 산민회, 새언론포럼, 생태문명원, 서울대학교민주동문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안동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여정남기념사업회, 5.17.가족, (사)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사)울산민예총, 유신청산민주연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인권연대, (재)인권재단사람, 임시정부기념사업회, 자유언론실천재단, 장발장은행,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대협동우회,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북대학교민주동문회, 전북민주동우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지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주동학혁명기념관,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주권방송, 진보당, 참여연대, 천년전주사랑모임, 천도교청년회, 천안역사문화연구회, 천주

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촛불승리전환행동, 70년대민주노동운동동지회, 통일광장, (사)통일맞이, (사)평화의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CK)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사)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 한국기독교사회발전협회, 한국기독교장로회송암교회,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KSCF,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신민주화운동동지회, 합수운 한봉기념사업회

장례위원(개인)

강금실 강기종 강기탁 강대성 강문대 강미 강성구 강성남 강성두 강수돌 강수영 강영매 강영원 강영훈 강은옥 강인희 강정은 강창일 강태호 강혜란 고경숙 고성휘 고종윤 고희관 공수현 곽노현 곽예람 구문정 구인호 구자우 권두섭 권병길 권석현 권영국 권영길 권영석 권오병 권인숙 권정호 권혁근 권형택 권호영 권호현 기동민 김거성 김경애 김경옥 김관수 김광훈 김구대 김군태 김금옥 김기덕 김남근 김남주 김남중 김대진 김덕진 김동한 김란희 김래곤 김묘희 김무락 김미란 김미숙 김민기 김병용 김병욱 김상운 김상은 김상현 김설이 김성주 김세희 김소리 김소연 김수장 김숙임 김승균 김승남 김승원 김승진 김신혜 김영배 김영수 김영일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빈 김용채 김원규 김원식 김원이 김유빈 김윤기 김윤미 김은정 김은형 김은혜 김인숙 김인아 김인중 김재광 김재규 김재왕 김재우 김재하 김재홍 김정승 김정완 김정하 김정호 김정환 김정환 김정희 김종귀 김종보 김종우 김준묵 김준봉 김준우 김준현 김준희 김지미 김지혜 김진 김진 김진 김충태 김철준 김태근 김태형 김하나 김하범 김한정 김한주 김해성 김현수 김현수 김현승 김현준 김형선 김형태 김혜정 김혜진 김호철 김홍길 김홍석 김화복 김희선 김희수 김희진 나상기 나원연 남구현 남성욱 남형두 노병관 노병호 노주희 노중선 노혜성 녹두꽃채봉 단병호 류경완 류다솔 류민희 류신환 류태선 류하경 류한호 맹완재 명진 문경식 문국주 문영곤 문은영 민경한 민인기 박갑주 박경수 박관석 박기봉 박남수 박다혜 박동민 박래균 박몽구 박미혜 박민수 박민주 박삼성 박상혁 박석운 박선아 박선후 박성민 박성호 박수빈 박시원 박시원 박연철 박영석 박영숙 박영숙 박영자 박영주 박옥희 박완주 박요한 박용대 박용범 박용일 박용호 박인동 박재홍 박정근 박정만 박정민 박정삼 박종만 박종훈 박지원 박지원 박현근 박홍섭 박홍용 박환철 박희은 방인성 배광열 배지연 배진경 백성기 백승현 백영서 백원담 백은성 백인순 백주선 부운경 서선영 서성민 서승 서영교 서용순 서창석 서창훈 서채완 서치원 서해성 서희원

석원정 선태삼 선한길 설훈 성양권 성장현 성창익 소라미 소병훈 소삼영 소현민 손
 정모 손정목 손호철 송갑석 송경동 송경용 송경한 송기호 송만규 송운학 송재덕 송
 창운 송해익 송향순 신관섭 신대균 신동근 신동미 신동수 신승민 신영대 신영미 신
 윤경 신정훈 신창기 신태식 신하나 신학림 신학철 심규협 심규협 심상정 안김정애
 안병용 안상운 안재창 안지중 안한진 안호영 양경수 양경숙 양관수 양규현 양기철
 양기환 양길승 양동규 양성우 양영두 양옥희 양은지 양재영 양진성 양홍석 어기구
 엄기섭 엄미경 여상화 여연심 여인철 여태명 염형국 오경민 오경진 오민애 오병두
 오선희 오세범 오수연 오영훈 오춘상 오카모토아츠시(일본 이와나미서점 전 사장)
 오하나 오하나 오현희 우성구 우아름 우원식 원도연 원민경 위성곤 유기홍 유길중
 유봉순 유석성 유선규 유선호 유신혜 유영경 유영표 유철중 유혜숙 유홍준 육순중
 윤관석 윤남식 윤미향 윤복남 윤석인 윤수경 윤순철 윤순탁 윤여연 윤영덕 윤영자
 윤영천 윤영환 윤원철 윤유선 윤인섭 윤지영 윤청자 윤택근 윤혜라 윤후덕 은우근
 이경숙 이경재 이광일 이기연 이기호 이길호 이남 이덕욱 이덕춘 이덕희 이도흙 이
 동균 이동섭 이동우 이동주 이동준 이두수 이두엽 이명곤 이명옥 이무성 이문상 이
 미경 이민호 이보라 이상덕 이상열 이상의 이상의 이상철 이상호 이상희 이석원 이
 선경 이성숙 이성재 이성호 이소아 이소영 이수미 이수연 이수호 이숙영 이승억 이
 승익 이승홍 이승환 이양수 이영기 이오영 이완기 이요상 이용빈 이용우 이용위 이
 원영 이원택 이원희 이유진 이윤영 이윤 이윤주 이은 이은정 이인복 이인영 이장섭
 이재규 이재규 이재근 이재봉 이재선 이재정 이재호 이재화 이정민 이정환 이정희
 이종구 이종민 이종민 이종욱 이종철 이종훈 이주연 이주완 이주한 이주희 이주희
 이지현 이지현 이진혜 이찬진 이철 이철순 이춘도 이춘섭 이태의 이태현 이학준 이
 현배 이현아 이형준 이해정 이호성 인영남 인재근 임규영 임상우 임상택 임성래 임
 수경 임수진 임영순 임영희 임익근 임왕택 임장철 임재성 임정현 임종인 임지연 임
 채균 임춘성 임태경 임태향 임태훈 장경욱 장규홍 장길완 장미희 장범식 장보람 장
 서연 장석재 장순향 장영석 장완익 장우식 장유식 장종하 장종화 장주영 장지훈 장
 진우 장하진 장현권 장희익 전다운 전덕용 전민규 전성용 전인권 전종덕 전진우 정
 경자 정관영 정다운 정대규 정동열 정동익 정명기 정민영 정병욱 정상시 정성국 정
 성현 정성혜 정세일 정소연 정연석 정연순 정영원 정영원 정원진 정윤모 정인기 정
 인성 정일호 정재돈 정종선 정종열 정종훈 정지강 정찬용 정찬형 정춘숙 정태춘 정
 한중 정해일 정혜선 정혜열 정환춘 정훈모 조기숙 조미연 조민자 조병규 조세현 조
 수진 조숙현 조승래 조아라 조아라 조영관 조영보 조영선 조오섭 조완기 조용환 조
 은호 조인영 조일래 조정남 조항원 조현삼 조혜인 조희주 좌세준 주선국 주영채(주
 선원) 주재석 주제준 주철현 진근태 진선미 진성수 진성준 진윤식 진천규 차병직 차
 상철 채수일 채원희 채희완 천낙봉 천웅소 청화스님 최갑수 최건섭 최경을 최권행

최기우 최동현 최명철 최민화 최병진 최봉태 최석군 최수동 최열 최영선 최운경 최
은순 최은아 최은아 최자웅 최정규 최종연 최종윤 최창용 최철 최혁용 최현정 추성
길 탁경국 편호범 표완수 하주희 한가람 한경수 한경준 한국염 한기양 한상권 한상
석 한성규 한숙 한용상 한찬욱 한충목 한택근 한혜빈 함경숙 함광남 허길영 허문경
허미숙 허미숙 허상수 허영 허은나 허육 허진선 현지현 홍민호 홍석경 홍수진 홍승
현 홍윤기 홍익표 홍정민 홍정훈 홍현수 황규표 황영대 황일봉 황준협 황필규

산민(山民)을 추억하다



한승헌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 이전 현판식에 참여했다.

현판은 한승헌 변호사의 글씨로 제작되었다(2015년.)



한승헌 변호사가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변호인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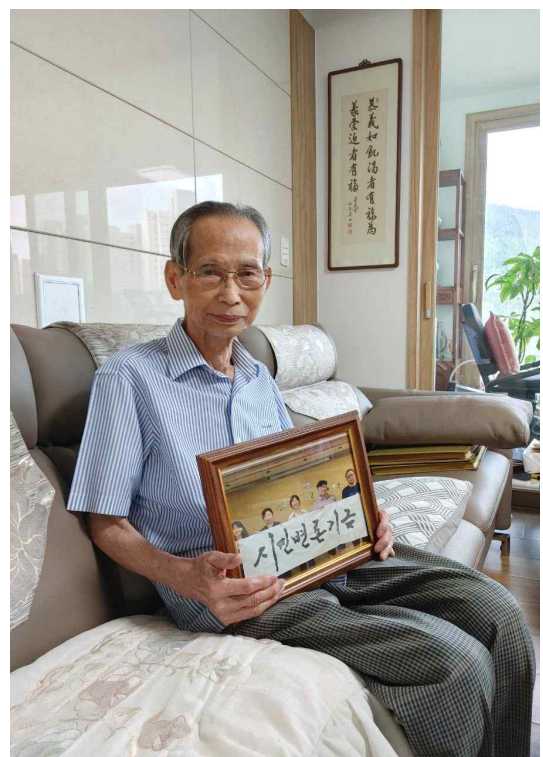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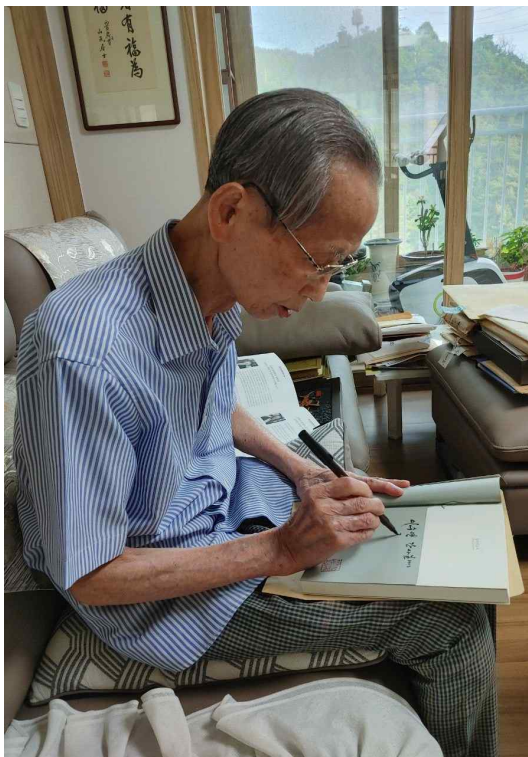
한승헌 변호사가 서예 스승이신 검여 유희강 선생 전시회에 방문한 모습이다(2020년.)



한승헌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있다(2020년.)



한승헌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신년 하례회에
참석하여 후배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2016년.)



한승헌 변호사가 공익소송을 위한 ‘시민변론기금’의 휘호를 쓰는 모습(좌측) 후배들로부터 액자선물을 받은 모습(우측)이다. 한승헌 변호사는 후배들에게 곧 보자는 인사를 전했다.(2021년)

산민(山民) 한승헌 변호사 민주사회장 장례위원회